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 새만금 정책포럼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도전!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2024 새만금 정책포럼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이원택 국회의원, 조배숙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국무조정실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 및 민간 기업 전문가 등이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적기금 투자재원으로 활용해 새만금 신속 개발”

전북자치도·지역 여야 국회의원, 정책포럼 개최

새만금 기업투자 촉진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기업친화 환경 조성 위해 네트워크 강화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연구원,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새만금 사업 가속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전북자치도와 이원택·신영대·이춘석·조배숙 등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안호영·정동영·박희승 국회의원을 포함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주요 정부기관 관계자 및 민간 기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가자들은 새만금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프로젝트를 강조하며 공공과 민간 자본을 활용한 투자 유치 전략과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방향 제시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와 김재구 전북

연구원 새만금연구센터장은 각각 새만금 개발의 필요성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 교수는 “새만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을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공동 개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기업 간의 네트워크 강화와 이를 통한 산업생태계 선순환구조 형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구 센터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만금과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 축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시 토지 이용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도시 기능 중심의 공간 배치를 추진하고, 수요 맞춤형 기업 유치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개발 주체 명확화를 통한 체계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손재권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명예연구위원, 새만금개발청 박준형 개발전략국장, 전북일보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성일하이텍 열광현 상무가 패널로 참석해 다각적인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특히 새만금 개발이 단순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한국의 경제 지형 변화를 이끄는 주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개발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며, 정부 투자 확대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SOC 인프라의 신속한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2012년부터 새만금의 중장기 과제 및 현안에 대해 정책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공공주도 매립 공론화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라는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가 새만금의 실질적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만호 기자

협약형 특성화고 힘차게 출발

서울서 '공동 비전선포식'
전북은 한국치즈과학고 선정
치즈산업 인재양성 비전 제시

전국 10개 협약형 특성화고 공동 비전 선포식이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기업·특성화고가 협약을 맺어 교육협력을 실현하는 모델이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청, 지자체, 산업계, 특성화고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협약형 특성화고의 중요성과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전 선포식을 통해 협약형 특성화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지역 산업 기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된 한국치즈과학고가 참여해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지난 1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공동 비전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김관영 한국치즈과학고 교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치즈과학고 컨소시엄은 전북 교육청, 임실군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치즈 관련 유관기관, 식품클러스터진흥원, 원광대, 전북대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전북 지역의 특화된 치즈 산업 인재 양성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치즈과학고는 '임실과 함께 움직이는 치즈명장, 세계로 꽃피울 지역인재'를 비전으로 △치즈 개발·제조 캡스톤 디자인 △마을과 함께하는 리빙랩모델 △교육·취업·후학습·정주를 위한 산학공동교육 △학교+기업 유제품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을 주요 교육플랜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상하농원·친한&B 등 지역 기업과 연계한 핵심기능인재, 스타트업 인재, 선취업 후학습(계약학과) 등 다양한 진로 및 성장경로를 제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사회와 교육기관, 산업계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세계한인비즈·JB-Fair 참여 기업 대상 수출전문가 컨설팅

오늘 도청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교류회'... 상호정보 공유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이하 대회) 후속조치를 위한 수출기업교류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JB-Fair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가 컨설팅과 수출기업 교류회를 진행한다.

전북자치도에는 1,000여개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중소기업이 수출에 대한 인력, 경험 부족 등의 애로가 있어 수출 진행에 따른 협상 방법, 수출계약 체결 프로세

스, 리스크 헷지 등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절실하다.

이에 이번엔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통상전문가와 참여기업을 매칭해 국가 및 바이어별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출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출전문가 컨설팅은 대회 및 JB FAIR에 참가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20여명 통상전문가가 100여 건의 상담 내용을 분석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L, CE 등 국가별 인증 준비부터 계약서 검토, 운송 및 통관 등 수출 전반에 대한 내용

으로 진행한다.

매칭 컨설팅 이후에는 스탠딩 리셉션 형태의 자리를 마련해 동종·이종 참여기업 간, 참여기업과 통상전문가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와 경진원은 올해 2월부터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삼성물산, 한화그룹 등 대기업 무역상사 출신 전문가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수출 전과정을 지원하는 '통상닥터'를 운영 중이다. /김익희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수

대표상징물(디) 25년 만에 바뀝니다!

장수군

JANGSU COUNTY

새디는 금강·섬진강의 발원인
첫물, 청정 산악지역,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생태관광·산악레저·생명산업의
' 으뜸 장수'를 형상화했습니다.

장수 그린	청정자연과 고원지역 의미
장수 블루	금강과 섬진강의 상류수원 '물의 으뜸 고장' 의미
장수 레드	대한민국 대표 레드푸드의 고장 의미